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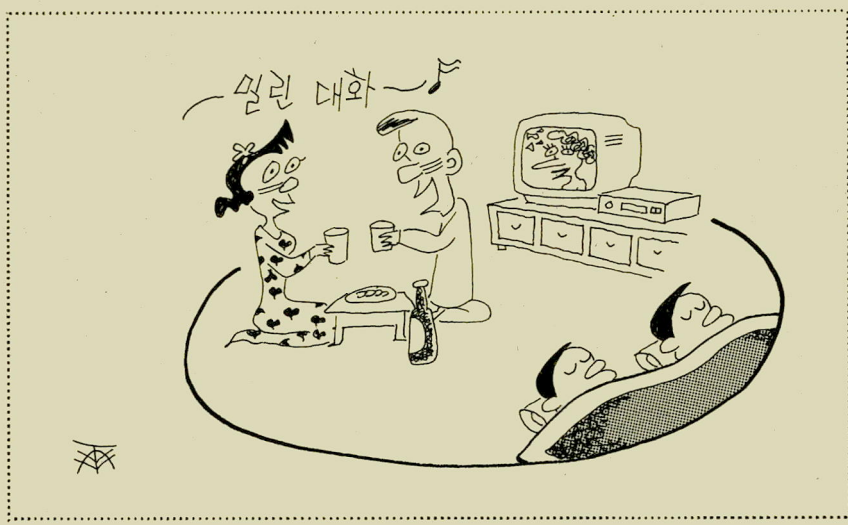
가정과 생활

노년기에 어휘가 풍부해지는 법

『월남동무』는 두개지만 골
치거리는 두배이상이지요
주말이면 빨래다 청소다
밀린 집안일을 처리하고
부족했던 잠을 보충하느라
취미생활은 제쳐놓으 밖에
없다고 말발이 주부 鄭美
暎씨(30·회사원)는 푸념이
다.
동갑내기 교사인 남편
金成煥씨와 결혼한지 3
년, 아직 아기를 낳지 않아
다른 말발이 부부에 비해
홀기분한 편인데도 매일
쫓기는 듯 바쁘기만 하다.
처음에는 남편이 설거지도

도와주는 등 성의가 있었으
나 이제 집안일은 거의 아
내 몫이다.
결혼 직후 작은 차를 사
서 주말이면 1박2일 지
방나들이를 다녔으나 요즘
에는 교통체증 때문에 남편

공원도 가보고 기분이나면
노래방에도 간다. 집안일
곳에서 만나면 시댁과의
갈등이며 직장에서의 일 등
에 관해 더 쉽게 이야기를
나눌 수 있다.
수원대 崔圭浩교수(가정
관리)의 최근 조사에 따르
면 말발이 부부 상담수가
「대화부족」을 심각하게 느
끼고 있으며 같이 들릴 수
있는 취미가 없는 경우가
절반이상이고 30%이상의
성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
으로 나타났다. 물론 시간
부족과 절친 피로가 가장
큰 원인이다.



말발이夫婦

<1>

밤화제가 아니면 간단한
여행도 떠나기 어려워 자
연「바보장자」TV 앞에 앉
는 시간이 많다.
이들 부부는 아무리 바
쁘더라도 금요일 밤시간엔
자신을 위해 쏙개둔다.
좀 어색하기는 하지만 연
애 시절 다니던 스포츠장이며

토요일이후면 도심 백화
점에서 만나 일주일치 반
찬거리에서 옷가지까지의
쇼핑이로 데이트를 대신하
는 말발이 부부들이 늘어
백화점들이 이를 이용해 매
주말 특별한 판촉프로그램

이런 어련함을 극복하기
위해 나름대로 모방을 개
발하는 가정도 많다.
결혼 10년째인 교사 成도
씨(38)는 토요일반듯게 두
아이를 재운 다음 아내(33·
은행원)와 함께 불렀장을
찾는다. 새벽 1, 2시경 집
에 돌아와 녹화해둔 TV
영화를 보고 맥주잔을 기
울이며「세상애기를 나눈
다」.

공원도 가보고 기분이나면
노래방에도 간다. 집안일
곳에서 만나면 시댁과의
갈등이며 직장에서의 일 등
에 관해 더 쉽게 이야기를
나눌 수 있다.
수원대 崔圭浩교수(가정
관리)의 최근 조사에 따르
면 말발이 부부 상담수가
「대화부족」을 심각하게 느
끼고 있으며 같이 들릴 수
있는 취미가 없는 경우가
절반이상이고 30%이상의
성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
으로 나타났다. 물론 시간
부족과 절친 피로가 가장
큰 원인이다.

아이 잠재운 뒤 노래방 불링장 찾아가기도

백화점 박물관 미술관 등
근무자는 부부중 한쪽의
휴일이 평일인 경우 휴일
을 고고하지 못하는 애로
도 크다.
남편만 일하는 가정보다
경제적 여유는 있지만 거의
모든 말발이 부부가 실시간
이 아쉽고 스트레스도 많
다. 그래서 면세점 직원 투
모씨(29)는 가느란한 남편
과 퇴근후 시내에서 만나
커피할때까지를 천금같은
데이트시간으로 활용한다
고 귀띔한다.

과출부를 소개하는 단체
들은 이런 수요 때문에 2년
전부터 토요일오후 2~5시
3시간간서비스인원을 많이
확보하고 있다. 비용은 1
만~1만5천원(가인비 1
년 50만원 정도).
아기를 낳으면서 남편
혼자 다니나 등산에 나서
「주말과부」가 되는 말발이
주부도 많다. 대부분「대
등한 관계」를 주장하며 결
혼생활을 시작하지만 집안
일과 함께 여가생활에서까
지 아내가 밀리기 심상이
라는 것.

을 마련한다.
토요일 오후 반나절동안
파출부와 함께 집안일을
모두 마치고 밤시간부
터 일요일까지 철저하
는 말발이 부부들도 많
다.
과출부를 소개하는 단체
들은 이런 수요 때문에 2년
전부터 토요일오후 2~5시
3시간간서비스인원을 많이
확보하고 있다. 비용은 1
만~1만5천원(가인비 1
년 50만원 정도).
아기를 낳으면서 남편
혼자 다니나 등산에 나서
「주말과부」가 되는 말발이
주부도 많다. 대부분「대
등한 관계」를 주장하며 결
혼생활을 시작하지만 집안
일과 함께 여가생활에서까
지 아내가 밀리기 심상이
라는 것.